

임실군, 지역 인재 양성 총력

애향장학회로 장학생 수혜대상 대폭 확대 · 봉황인재 학당 건립

임실군이 '교육으로 다시 찾는 임실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특히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장학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우수인재 집중 육성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올해 애향장학회를 통해 장학금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임실군 애향장학회는 올해 대학생 3백만원과, 고등학생 1백만원 증액은 물론 성적 우수자와 군인자녀, 취약계층 등의 고른 혜택을 위해 장학생 선발인원도 대폭 확대했다.

임실군 애향장학회는 지난 22여 년간 지역인재 육성은 지역발전의 초석이라는 가치 아래 1000여명의 학생들에게 20억이 넘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서울장학금을 제공하는 등 교육 기반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군은 장학사업과 더불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남다른 공을 기울이고 있다.

봉황인재학당 건립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봉황인재학당은 임실읍 봉황로 301번지(구 농업기술센터) 일원에 45억 원을 투자해 부지 5,934㎡, 연면적 1,593㎡로 3층 건물로 강의실, 자율학습실, 도서실, 식당 등이 들어서며 내년 초 개원을 목표로 건립 중인 공립 교육원이다.

봉황인재학당은 임실군의 우수한 학생들이 교육문제로 인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도시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도입한다.

내년부터 관내 우수 중학생들에게 양질의 방과후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 강사진이 국영,수 과목의 보충학습을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진행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봉황인재학당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올초부터 읍·면 순회설명회와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을 높여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봉황인재학당 운영계획과

장학사업 등을 담은 홍보안내문을 수시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배포해 지역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군통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바우처 사업 역시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바우처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소수 계층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군은 또한 다른 특기적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사업 조정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

심 민 군수는 "교육 때문에 도시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을 군정의 최우선 사업으로 지원해 나가고, 실질적인 교육사업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장류축제 '세계적 소스축제 대도약 준비 끝'

군, 주제 · 포스터 · 프로그램 선정 완료... 축제 독립 상징화 홍보효과 극대화

올해 순창장류축제는 순창의 전통장이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소스축제로 도약하는 전기가 될 전망이다.

군은 12회 순창장류축제 주제를 '순창의 전통장(醬), 세계인의 일품 소스(sauce)'로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군은 주제와 함께 축제포스터와 대표 프로그램도 함께 선정해 발표했다.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이남)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축제의 주제, 포스터, 진행 프로그램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축제의 방향 설정은 물론 올해 축제의 특징을 상징화해 축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조치다.

공모 진행결과 축제포스터는 4건, 주제는 386건, 프로그램은 72건 등 총 462건의 창작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축제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

여해 엄격한 심사를 걸쳐 대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6명을 최종 선정했다.

먼저 주제는 이영순(순창)씨의 '순창의 전통장(醬), 세계인의 일품 소스(sauce)'가 선정됐다.

전통장을 소스화해 세계소스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중인 순창의 성장전략과 축제의 외연 확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스터 부문에서는 이 문(대표 서예경, 전남 나주)에서 제안한 장류의 발효를 상징화한 작품이 선정됐다. 다양한 색깔의 원형을 발효의 이미지와 잘 맞게 표현했다는 특징이 있다.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염동렬(대전)씨가 제출한 '별빛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창의 밤'이 대상에 선정됐다.

순창 고추장을 사용한 치킨을 활용해 치맥파티와 야간 공연을 확대해 관광객들이 1박 2일간 순창에서 머물려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축제위원회와 전문가의 보정작업을 거쳐 올해 축제의 상징물로 본격 활용될 계획이다.

황승주 군수는 "순창장류축제의 앞으로 방향과 특성에 부합되는 새로운 주제와 포스터, 대표프로그램을 선정했다"면서 "올해는 전라북도 방문의 해인 만큼 장류를 소재로한 다양한 길러 콘텐츠 개발하고 제2회 세계소스박람회와 연계 운영해 장류축제가 대도약 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2회 순창장류축제는 오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순창전통고추장진수마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도전

남원시, 한국전력공사와 희망동행 협약

남원시는 10일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사와 신일종합시스템 남원지점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검침원 15명을 희망동행팀으로 위촉했다.

이날 협약식은 남원시장(이환주),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사장(최상철), 신일종합시스템 남원지점장(장시영), 검침원 15명이 참석했다.

협약식과 함께 검침원 15명을 희망동행팀으로 위촉하고 5월 1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희망동행팀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펴보고 취약계층 위기가정 및 전기요금 장기체납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 가구에 대해서는 시 주민복지과에 통보한다.

남원시는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사로 부터 통보받은 취약계층 위기가정에 대하여 우선 제도권 내 지원을 하고 제도권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민간자원 등을 동원하여 최대한 지원 할 방침이다.

남원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협력의 선도적 지자체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것이며 우리지역에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나눔이웃의 활성화와 인적안정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사장은 남원시와 함께 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신뢰받는 행정구현 앞장

임실군은 중요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10일 간부회의실에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22건을 선정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지역민에게 공개해 공직자의 책임의식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선정기준은 ▲주요군정 현안 사업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중점관리 필요성이 높은 사업 및 시책 등이다.

이에 따라 임실N과수용복합화, 육정호 문화마을레길 조성, 성수산휴양림매입 등 22개 사업은 임실군 홈페이지(www.imsil.go.kr)에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공개해 투명하게 관리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위생해충 방제 대응 나서

임실군이 기후변화와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감염병 매개 역할을 하는 위생해충 방제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군 보건의로원은 10일 보건의로원 대회의실에서 '감염병 매개체 방제 및 방역 장비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어름철 모기방제를 위해 읍·면 방역담당자 및 방역소독 요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무 소독방법 및 필요성 등을 교육했다.

담당자 및 소독 요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약품 사용방법과 소독기계 사용방법 등의 교육도 병행했다.

또한 각종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0월30일까지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고평소하천 새롭게 정비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10일부터 수지면 고장마을과 양촌마을을 관통하는 고평소하천을 새롭게 정비한다.

고평소하천 정비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53억원(국비 26.5억, 시비 26.5억)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사전설계 검토회의에서 국비 12억원이 추가 반영돼 총사업비 77억원(국비 38.5억, 시비 38.5억)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로써 자연친화적이며 안정적인 치수가능 확보에 더욱 힘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수지 고평소하천은 마곡저수지에서 수지천 합류지점까지 총 연장 L=2.3km로 협소한 통수단면과 노후하천시설물로 인해 수해피해가 잦았다.

제방 보축과 교량을 신설하는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고평마을과 양촌마을 주민의 수해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평 소하천 하천정비 사업은 자연본연의 모습 복원과 동·식물, 어류 등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친환경적으로 추진한다.

사업부지 인근 마을 보호수로 훼손하지 않고 보존해 마을 원터로 활용하여 마을주민에게 편의와 휴식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 호우에 대비해 안정적인 치수가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원시는 오염되고 훼손된 수질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남계지구 지적재조사 착수

순창군은 최근 전북도 건설교통국 김천환국장 및 지적재조사사업 관계자 등이 '17년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하여 순화?남계지구를 방문한 가운데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군에서는 올해 사업대상지로 순화?남계지구를 지정고시하고 1,660필지(431천㎡)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그려져 있는 토지의 경계를 수치화된 좌표로 정확하게 등록하는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ijmaeil.com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